일반논문

懶雲 申禹相과 그의 詩文에 대하여*

김동준**

•차례

1. 머리말
2. 申禹相의 삶과 현전하는 자료들
3. 시문학의 실제와 특징적 면모
4. 맺음말-비평사적 시각을 덧보태

국문초록

이 논문은 申光洙의 첫째 아들인 申禹相(1730~1799)의 문집『懶雲稿』·『懶雲集』 및『槐景錄』을 학계에 알리는 것을 겸하여 그의 삶과 한시를 개략적으로 조망한 것이다. 신우상의 문학을 조망하기 위한 관점으로는 家風과의 관련성을 먼저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詩史的 의의를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신우상의 생애를 개괄하고『懶雲稿』·『懶雲集』의 구성과 주요 내용, 작품의 제작 시기 등을 정리하였다. 제작 시기를 기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2-A00085).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www.kci.go.kr

준으로 삼아 작품의 전체적 흐름을 재정리한 성과는 이후 신우상 연구에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본다.

이어 제3장에서는 신우상 시문학의 실제와 특징적 면모를 '家風과의 관련성', '風流의 시적 수용과 艶情化 경향'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 그의 시에 나타난 緣情的이고 浪漫的인 경향, 풍류와 염정을 활용하는 경향, 음악성을 겸비한 악부 창작의 양상, 艶情風의 한시를 강화한 양상이 家風과 연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특징이 18세기 前後의 漢詩批評史的 맥락에서 보건대, 擬古派의 자양분을 섭취하여 향토색과 지역성을 능동적으로 흡수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우상의 저술과 시문학에 대한 본고의 성과를 통해 古樂府 정신의 토착화 방향이 얼마간 증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申禹相, 申光洙, 申光河, 申履相, 申奭相, 『懶雲稿』, 『懶雲集』, 『槐景錄』, 艶情, 風流, 擬古派, 古樂府

www.kci.go.kr

1. 머리말

이 글은 懶雲 申禹相(1730～1799)의 문집인『懶雲稿』·『懶雲集』및『槐景錄』을 학계에 알리는 것을 겸하여 그의 삶과 한시를 개략해보고자 한다. 申禹相은 石北 申光洙의 첫째 아들로서 아직까지 그와 그의 문집은 학계에 보고된 바 없으나[1] 조선후기 문단에서 한번쯤 검토되어야 마땅할 대상이라 보인다.

아우 申奭相(1737～1816)이 쓴 <哭伯氏文>(辛酉年: 1801.1.27)에 따르면[2] 그는 "器局이 峻整하고 행실이 潔確하며 文詞가 贍敏한 분(以公器局之峻整, 操履之潔確, 文詞之贍敏, 較諸當時之進取者, 孰有可以居前.)"으로 소개되어 있다. 부친 신광수의 문명에 미치지는 못했으나 '文詞가 贍敏했다'고 한 증언은 그의 문학적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또 다른 아우 申履相(1732～?)이 <書春州雜咏後示兒序>에서 자신의 문학 수업을 술회한 내용, 즉 "이윽고 家大人[신광수]께서 古樂府, 離騷, 文選, 班固, 司馬遷, 左傳, 國語를 비롯하여 老杜, 三唐詩 등의 詩文을 가르쳐주셨는데 반드시 先秦과 兩漢을 시초로 삼으셨다(旣而家大人, 授以古樂府騷選班馬左國及老杜三唐詩等詩文, 必以先秦東西京爲發軔之初)"는 증언을 덧보태면,[3] 아마도 신우상 역시 부친에게서 강도 높은 문학 수업을 받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문학 수련 과정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부친 신광수가 '文

1) 이 글은 문헌과해석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주관한「석북 신광수 선생 탄신 300주년 기념 학술대회-석북 신광수와 숭문연방」에서 발표한 초고를 보완한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石北家와 조선후기 문단」(안대회),「石北 文集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이은주),「석북과 음악」(송지원),「詩人 申光河의 삶과 人間相」(진재교),「申芙蓉堂의 생애와 의식세계」(박영민),「申履相의 생애와 저술」(장유승),「大鹵 申奭相가 그의 시문집」(이현일)의 발표가 있었다. 본고는 이날 발표에서 보고된 바를 두루 참조하였다.

2) 申奭相,『大鹵遺稿』文卷.

3) 申履相,『蕉石集』.

www.kci.go.kr

必秦漢, '詩必盛唐'을 지론으로 삼았던 擬古派의 문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唐宋 이전의 문학 작품을 자질들에게 강조하여 교육했던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古樂府의 학습은 이 글에서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신우상의 문학을 조망하는 관점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家風에 유의하면서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한다. 부친대의 申光洙, 申光淵, 申光河, 芙蓉堂 申氏는 당시 문단에서뿐만 아니라 한문학사에서 뚜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렇게 걸출한 문인들의 영향에서 자라난 신우상과 그의 형제들 또한 이들의 자양분을 자기화하면서 성장했으리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탐색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우상의 한시가 18세기 한문학의 한 부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는 신광수 가문의 시풍이 조선후기 한시사와 비평사적 맥락에서 어떤 위상을 지니는지 파악해보는 과제와 긴밀히 연결될 것이다.

2. 申禹相의 삶과 현전하는 자료들

1) 申禹相의 생애

□ 申禹相은 본관이 高靈으로, 자가 善甫 또는 伯益이며 忠淸道 韓山 출신이다. 신석상의 <哭伯氏文>(1801.1.27)이 작성된 시점에서 "오늘 새벽에 제사지내는 날은 곧 공의 終祥日(今晨之祭 卽公之終祥也)"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역산하면 終祥[大祥: 죽는지 2년 되는 해에 지내는 제사]로부터 2년 전인 1799년 1월 27일경에 타계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출생한 장소가 어디인지는 분명치 않다. 조부 申澔 代부터 거처한 충청도 韓山의 鄕里인지 아니면 京邸가 있었던 嘉會坊의 齋洞[宰洞으로도 표기됨]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그는 부친 신광수와 어머니 윤씨 부인(尹斗緖의 따님) 사이에서 5남 3녀

www.kci.go.kr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기존의 보고에서 그의 雁行에 대한 소개는 다소 들쑥날쑥하다. 초기 연구자에 속하는 윤경수는 申禹相, 申夔相, 申渭相, 申奭相, 申甫相, 李顯文(이하 사위), 韓公權, 韓錫堂으로 보았다.[4] 또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에서는 그의 초명을 申孟權으로 적고 아우들 또한 申敬權, 申應權, 申命權, 申達權으로 기록하였으며[작성자는 '崇禎三己卯式年司馬榜目' 등을 근거로 삼았음], 자가 景益 또는 禹相이라는 설까지 제시해놓았다.['崇禎三辛卯式年殿試文武科榜目' 등에 근거함]. 이에 비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석북집 해제>(필자: 辛容南)에서는 申光河가 지은 申光洙의 <行狀> 및 『高靈申氏世譜』 등에 근거하여 5남 3녀를 申禹相, 申履相, 申渭相, 申奭相, 申甫相, 李顯文, 韓公權, 韓錫堂으로 정리하였는데 필자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한다. 1775년 신광하가 쓴 <행장>을 일차적인 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5]

정리하자면 신우상의 형제 5인은 초명이 각각 申孟權, 申敬權, 申應權, 申命權, 申達權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1771년 무렵에 장남 申孟權이 문과에 합격하면서 부친이 申禹相으로 개명한 듯한데[6] 이에 따라 형제들의 이름이 연달아 '權'字 돌림에서 '相'字 돌림으로 바뀌었다고 보인다.[7] 이중

---

4) 윤경수, 『石北詩硏究』, 정법문화사, 1984, 11쪽.

5) 申光河, <行狀>, 『石北集』(한국문집총간 231) 권16, 附錄. "[生五男三女. 男長禹相, 文科吏郎, 出爲督郵者. 次履相, 擧進士. 次渭相, 奭相, 甫相. 女長適李顯文, 早寡. 次適韓公權, 韓錫堂. 禹相無子女, 立渭相第二子子之. 履相有二子, 未娶. 二女長適柳遠鳴, 一女幼. 渭相有二子, 未娶. 其仲, 卽出后於禹相者也, 一女幼. 奭相出后於仲氏光河, 又無子, 取甫爲子." 이중 申甫相이 신광하 자신에게 出系되었다고 하였는데, 신보상의 후손이 끊기면서 신광하 계통은 絶孫되었다.

6) 신광수, <答具承旨>, 『石北集』 권11. "意外兒第, 非不爲衰門之慶, 奈此不洎, 以喜爲悲. (중략) 仲子敬權, 改名履相, 近纔入京, 見錄陞抄." 신경권을 신이상으로 개명하였다고 한 기록으로 보아 신맹권을 신우상으로 개명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장유승의 발표문 참조함.

7) 신부용당의 『芙蓉詩選』에 <寄第四姪達權書>가 있다. 신광수의 다섯째 아들인 申達權곧 申渭相을 '제4질'로 한 것은 5형제 중 신달권이 편지를 작성한 시점에서

www.kci.go.kr

申履相은 후에 다시 申蘷相으로 개명하였다.[8]

□ 한편, 신우상이 어려서 누구에게 수학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에 든 申履相의 <書春州雜咏後示兒序>을 감안하면 부친에게 시문을 학습했을 가능성이 짙다. 이후 그는 30세인 1759년에 식년시에 進士로 합격했으며(사마방목), 42세 되던 해인 177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官人의 길을 걷게 된다.

아래는 신우상이 자신의 官歷을 기록한『槐景錄』의 내용을 따라 그의 생애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槐景錄』[9]은 1768년 7월에 直赴殿試된 이후부터 1798년 10월에 한산에 있다가 執義에 임명되어 상경하기까지, 그가 맡았던 직분 및 재직 시절에 올린 상소문 등을 기재해둔 것이다. 필사체는 한 사람 솜씨인데 저자의 수택본인지 혹은 후대의 누군가가 정연하게 轉寫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어쨌거나 이 책은 신우상의 생애와 작품 창작 연대를 고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기록이 끝나는 시점[1798년 10월]을 기준으로 삼자면 한산에서 상경하여 이듬해 1월 27일 경에 경저인 재동에서 삶을 마감한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서는 * 표시를 달아 그의 시집인『懶雲稿』와『懶雲集』소재 한시의 제작 시기를 첨가하고자 하며, # 표시를 달아『朝鮮王朝實錄』및『日省錄』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을 덧보태고자 한다.

『槐景錄』의 「立朝錄」에서 간추린 신우상의 생애

* 1759(20세) : 진사시 합격.

* 1765(36세) : 綾城[오늘날의 화순] 을 기행하고『懶雲集』[10]의 「綾城錄」

이미 사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8) 장유승은 위의 발표문에서 1790년 이전에 신기상으로 개명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9) 후손가 고령신씨 崇文會 소장본.

www.kci.go.kr

을 지음.

* 1766(37세) : 서울 齋洞 京邸에 머물며 『懶雲集』의 「北山錄」(2)을 지음.

* 1767～1769 무렵: 서울 경저에 머물려 『나운집』의 「北山錄」(1)을 지음.

* 출사 이전에 재동에서 동료들과 수창한 시편 등이 「槐香錄」에 수록되어 있음.

1768(29세) : 7월 七夕製에서 三下의 평점으로 居魁하여 直赴殿試의 영예를 얻음.

7.7(조선왕조실록: 이하 '실'로 표기) "임금이 숭정전 月臺에 나아가서 七夕製를 행하여 서울과 시골에서 각각 한 사람을 뽑아 생원 洪履健과 진사 申禹相을 모두 殿試直赴하도록 명하였다."

1771(32세) : 式年殿試에서 三等 / 3.29 假注書 / 10월 承文院 副正字 入直本院 / 12월 藝文館 檢閱.

1772(33세) : 부친을 배행하여 耆老科에 동행 / 8.1 待敎 / 9월에 부친이 寧越府使에 임명되자 呈辭하고 배행(9월～11월) / 12.1 奉敎 / 12월에 出六하여 成均館 典籍에 부처됨.

1773(34세) : 1월에 다시 呈辭하고 영월 방문/ 2월 齋洞에 머물렀다가 3월에 다시 영월 왕래.

* 『나운집』 「越中錄」[11]의 작품들이 이 무렵에 지어짐.

1774(35세) 7월 正言으로 通淸됨 / 8월 이조좌랑 / 10월 이조정랑 /12월 大同道察訪[평양의 大同驛을 중심으로 한 驛道]에 임명됨.

1775(36세) 1월 大同道의 임소에 도착 / 2월 道伯의 巡行을 수행하여 義州에 이름 / 4월 부친상

---

10) 『懶雲稿』와 『懶雲集』의 작품 수록 순서와 편차 방식이 같으므로 여기서는 『懶雲集』을 기준으로 삼는다.

11) 후손가에서 현재 『越中酬唱錄』이 전하고 있다 함. 申光洙, 申禹相, 申履相[申夔相으로 개명], 申甫相이 수창에 참여함.

www.kci.go.kr

* 『나운집』의 「關西錄」을 지음.

1778(39세) 3.25 興陽縣監에 제수됨 / 8월에 전주에 祭官으로 참여함

1779(40세) 질병으로 廢務함(7～12월)

1780(41세) 祖母喪

1.3(일성록: 이하 '성'으로 표시함) 인사고과에서 연거푸 中을 맞아 파직됨

1782(43세) 7월 正言에 임명 / 8월에 장문의 '討逆疏'를 올림/ 11월 正言에 제수됨 / 12월 鏡城判官에 제수됨

8.15(실) "전 정언 申禹相의 관직을 삭탈하고 수찬 李頤祥은 파직하고 서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12.18(성) 정언에서 체차됨 / 12.20 지평 제수 / 12.29 경성판관 제수

* 『나운집』의 「塞上錄」을 지음.

1783(44세) 1.19 출발 2.23일 上任.

1784(45세) 경성판관 재임 중에 살인사건 처리 문제로 감찰 당함 / 윤3.19 서울로 돌아와 의금부에서 취조 받음 / 7.20 敍用되어 軍職에 부처됨 / 12.13 正言에 제수됨

3.3(성) 함경감사 李命植이 신우상을 罷黜하였다고 치계함 / 3.25 용서 받음 / 4.8 勘放

1785(46세) 掌令에 임명됨

12.23(성) 헌납 제수 / 12.28 질병을 이유로 체차를 바라는 상소를 올렸으나 유임됨. "신이 평소 痰癖症을 앓고 있어 寒氣를 만나면 발작하는 것이 예사이므로 부지런히 직임을 살필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신의 직책을 체차해 주소서."

1786(47세) 1.9 獻納에 제수되었다가 상소의 여파로 1.15일 파직/ 3.22 헌납 제수

1787(48세) 8.29 헌납에 제수되었으나 9.7에 정조의 노여움을 타 파직됨

10.18(실) 사헌부 헌납으로서 연명 상소함.

www.kci.go.kr

1788(49세) 4월 현재 헌납 / 8.18 獻納에 다시 제수됨 / 11월 執義에 제수
8.20(실) 헌납. 과거장의 무질서를 단속하지 못한 主試官의 파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림 / 12.5(실) 집의. 윤시동의 죄를 논하는 상소를 올림

1789(50세) 윤5월 司諫에 제수됨 / 10월 執義 (상소문 몇 건) / 12월 承旨에 擬望됨

1790(51세) 司諫(在外許替)/ 11.11. 司僕 正 / 12월 병으로 체직됨

1791(52세) 2.3 司諫

1792(53세) 2.5 執義(장문 상소) / 2.18 司諫(상소) / 4.19 掌令 / 6월 24일 宗簿 正 / 10.23 司諫
2.20(실) 사간. '역적 金宇鎭을 법대로 처결하라'는 상소를 올림

1793(54세) 5.9 司諫. 장문의 상소를 올렸다고 遞差되고 護軍에 부처됨 / 6.15 茂長縣監에 제수됨 / 8.12 祭官으로서 전주의 경기전에 참여/ 10월 내시의 山訟事에 연루되어 무장 현지에 定配됨
5.22(실) 사간. '趙尙鎭의 유배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체직됨 / 12.24(실) 내시의 불법 山訟을 외면했다 하여 무장에 정배함

1794(55세) 1.1 赦典에서 이름이 누락됨 / 1.20 特敎 放送됨 / 2.10에 무장을 떠나 2.14일에 還家함
1.8(실) 내시의 산송사로 인해 問罪 당함. 李書九가 치계한 것임.

1795(56세) 司諫에 擬望
1.17(실) 사간으로서 合啓하여 홍국영의 사면을 반대함.

1796(57세) 司諫에 擬望

1797(58세) 10월 한산에 머물다가 執義에 제수됨
10.12(실) 과거장의 난잡함에 대한 대책을 상소함.

1798(59세) 應旨陳疏함. (『槐景錄』 끝)

이상 『槐景錄』을 참조하여 그의 생애를 종합하자면, 그는 20세에 진사

www.kci.go.kr

시에 합격하고 29세에 七夕製에서 居魁하여 直赴殿試하였으며, 32세에 식년시에 합격한 뒤부터 졸년 직전까지 줄곧 관직에 종사한 인물이다. 36세에 大同道 察訪, 39~40세 興陽縣監, 43~45세 鏡城判官, 54~55세 茂長縣監 등의 경력을 제외하면 대체로 중앙관서인 승문원, 승정원, 사헌부, 사간원에서 근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인가문에 속했던 인물들, 예컨대 蔡濟恭, 睦萬中, 李家煥, 丁範祖, 申宅權, 尹持訥 등과 두루 교유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현전하는 『懶雲稿』와 『懶雲集』에는 관직에 나아가기 이전의 시편을 비롯하여 외직에 봉직했을 즈음에 남긴 시들이 주로 남아 있다. 현전 시문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정리한다.

2) 『懶雲稿』와 『懶雲集』의 구성 및 주요 내용

현전하는 신우상의 문집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안대회 소장본 『懶雲稿』[12]와 장서각 소장본 『懶雲集』[13]이다. 둘 다 시집이므로 散文 작품을 살피기는 어렵다. 또한 두 이본은 작품의 수와 편차와 거의 똑같다. 『懶雲稿』의 뒷부분에 초서로 필사된 작품 9제 10수가 추가되어 있고, 『槐景錄』의 내용 가운데 1774년 7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기록이 그대로 轉寫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작품의 출입은 거의 없다. 심지어 동일 작품에 대한 글자의 行間 위치, 이체자의 모양까지 거의 같다. 생각건대 이 두 이본은 동일한 저본을 대상으로 轉寫했을 가능성이 짙다.[14]

---

12) 자료를 복사해주신 안대회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13) 장서각 소장본 『懶雲集』의 형태사항은 1冊, 97張의 필사본으로 크기는 24.6×15.7㎝이다.

14) 발표회에 참석한 후손가 '崇文會'에서 알려준 바에 따르면, 석북가의 문집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高宗 代에 벼슬한 申觀休였다고 한다. 현전 『石北集』을 비롯하여 가문 소장의 전적들이 그 무렵 또는 그 이후에 정리되면서 얼마간의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석북집』도 예외는 아니었을 듯한데, 이에 대해서는 위의 이은주의 발표문 참조.

www.kci.go.kr

다른 점이 없지는 않다. 우선 필사체가 다르다. 장서각본의 경우 한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 듯한 해정한 해서체로 정리되어 있는 반면 안대회본의 경우 초반부는 정연한 해서체로 필사되어 있으나 중반 이후부터는 초서체를 겸하고 있으며 다시 끝 부분에서 해서체로 적혀 있다. 요컨대 장서각본의 필사자가 1인으로 추정되는 반면 안대회본의 경우 적어도 2~3인의 필사체가 섞여 있는 셈이다. 두 이본은 또한 첫 장에 찍힌 소장인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제목 주의 有無에서 차이가 난다. 예컨대 안대회본에서 <送蔡士述赴省峴督郵>, <哭伯宅夜賦>로 처리된 작품이 장서각본에는 <送蔡士述赴省峴督郵 (弘履)>, <哭伯宅夜賦 (谷伯氏姓丁)>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모든 작품의 제목에 인명 등을 부기한 것은 아니지만 장서각본에서 얼마간 인명고증을 겸한 간단한 주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점을 고려하면 혹 안대회본이 선행본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 역시 확실치는 않다.[15]

두 이본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바는 두 이본이 모두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였다는 점이다. 즉 「北山錄」(1)에서 출발하여 「塞上錄」에 이르기까지 7가지의 別篇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같으나 작품의 창작 연대를 고려하면 두 이본 모두 선후관계가 어긋난 대목이 적지 않다. 이는 해당 작품들을 재정리할 당시 원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모자랐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아래는 두 이본에 공통된 총 7편, 325제 455수(타인의 차운, 원운은 제외)를 원문의 편차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안대회본에 추가된 내용은 *표시를 달아 부기해둔다.

(가) 「北山錄」(1) (66제 93수)

서울 齋洞(추정)에 머물렀던 1769년 무렵의 작품으로 보인다. 수창시(韓

15) 예컨대 안대회본에는 「槐香錄」 첫머리에 "書於齋童臂上"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으나 장서각본에는 이런 표지가 없다.

www.kci.go.kr

明懸: 누이의 아들), 송별시(蔡弘履, 權侑, 兪恒柱, 丁範祖, 睦萬中 등), 풍경시 등의 비중이 높다. 후반부에 배치된 <送丁法正赴黃山督郵>을 기준으로 삼자면 丁範祖가 황산도 찰방으로 나간 시기가 1769년이니 그 이전에 제작된 작품들이 다수라 할 수 있겠다. <夜坐拈韻與明懸同賦>, <夜聞綾妓彈琴>(8수), <送蔡士述赴省峴督郵 (弘履)>, <北山夜興>, <送洪景協還任豊川>, <送兪秀五赴北幕>(兪恒柱), <送丁法正赴黃山督郵>(4수: 1769), <送洪景尹之任綾城>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夜聞綾妓彈琴>(8수)은 綾城[화순] 기생을 서울에서 만나 지난날의 릉성 기행을 추억하며 지은 것이다. 릉성에서의 풍류에 대한 기억은 <送洪景尹之任綾城>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서글퍼라 6년 전에 남녘에서 돌던 일이여(南遊怊悵六年情)"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작성 시점에서 6년 전쯤에 이곳을 기행했던 듯하다. 참고로 아래의 「綾城錄」에 따르면 그가 이곳을 여행한 것은 1765년이었다. 어머니 윤씨의 고향이 해남이었고 자신의 향저가 한산이었으므로 화순 일대를 유람하기에 적합했던 것 같다.

(나) 「槐香錄」(17제 39수)

동료들과 수창한 시편들이 다수이다. 출사 이전에 지었던 작품들로 판단된다. <走和稚功韻>, <香齋拈韻>, <後夜對酒拈靑字>, <酬稚功見寄>, <寄題屋漏軸仍詠十景>, <携金李兩畵師踏雪香橋仍過東村>, <贈金畵師>, <贈李畵師> 등이 적혀 있다. 이중 <香齋拈韻>으로 보아 齋洞 경저에 아마도 '(槐)香齋'라는 편액을 단 공간이 있었을 듯하다.

(다) 「北山錄」(2) (26제 30수)

小序에 따르면, 1766년 봄 무렵에 재동에서 臥病하던 시기의 작품을 모은 것이다. 수개월 동안의 '幽獨無聊'한 차에 말 나오는 대로 읊었다고 하

www.kci.go.kr

였는데 病中이어서인지 감회를 읊은 작품이 다수이다. [소서: 丙戌(1766/37세)春, 臥病齋谷. 小差之後, 以將攝不出門, 數月幽獨無聊之中, 矢口成言, 只主消遣, 不成章理, 類似熱囈夢譚, 觀者詳之.]

<早春寄遠>(3수), <寄丁法正>, <寄兪秀五(恒柱)>, <寄權聖直(俏)>, <記異>, <朝起>, <病起看新月> 등이 있다. 이중 <記異>는 봄철에 눈이 내리는 이상 기후를 소재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綾城을 그리워하며 부친 시 <早春寄遠>(3수)에서 "악기 소리가 꿈엔 듯 1년이 지났다(笙歌如夢隔年聲)"고 한 것으로 보면 그가 1765년에 릉성을 기행한 것과 부합된다. 그럴 경우 『北山錄』(2)는 『北山錄』(1)보다 앞선 시기의 작품집으로 보아야 한다.

(라) 『綾城錄』(32제 62수)

소서에 '을유년(1765) 봄에 내가 綾城의 과객이 되었다. 대략 어여쁜 여인들과 누대의 정취를 만나면 경관 따라 일 따라 문득 미친 듯이 시를 짓는 자료로 삼았다. 사이사이에 장난스러움이 섞여 있으나 또한 玉臺香奩의 아래에 이바지할 만하다. 만약 외설스러움을 탓한다 해도 감히 사양하지 못할 것이다.(乙酉春(1765), 余客綾城, 署有綺羅樓臺之趣, 隨境遇事, 輒資狂率. 間多排諧, 而亦可供玉臺香奩之下陳, 若其靡褻之誅 有不敢辭)'라고 하였다. 곧, 1765년에 綾城을 유람하며 마음껏 구경했던 風情을 읊은 시들을 모은 것인데, 그 자신이 밝힌 대로 風流에 임하는 香奩體 한시가 많다.

예컨대 <綾城別曲>(8수), <過州城戱吟>, <贈朱娘>, <又四絶>, <奉呈東閣>, <留別幼能>, <無題四首戱人>, <南茶別曲十解>는 모두 濃艶한 염정의 분위기를 풍긴다. 이중 <留別幼能>에서 "서울에서 3년을 머물다가, 남녘 고을에서 10일을 묵었네(京洛三年住 南州十日留)"라고 한 것을 보면, 使君인 '幼能'을 찾아와 능성에서 10일을 노닐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綾城錄』의 뒷부분에는 <槐省直中>(괴성은 承文院의 이칭),

www.kci.go.kr

<翰院直中吟示下省同僚>, <耆宴日次銀臺韻>, <苑中漫詠> 등이 편차되어 있다. 그가 1771년 10월에 승문원의 副正字가 되고, 1772년 1월경에 부친의 耆老科에 배행했음을 떠올리면, 말미의 작품들을 「綾城錄」이라는 편명으로 묶기는 어려울 듯하다. 대략 6년의 간격이 놓이기 때문이다.

(마) 「越中錄」(25제 30수)

越州 곧 寧越에 다녀오면서 남긴 시편을 위주로 하여 모은 것이다. 그가 영월에 다녀온 시기는 1772년에 영월부사로 부임한 부친 신광수를 배행한 즈음이다. 「槐景錄」을 참조하면 그는 1772년 9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1773년 1월과 3월에 합하여 3번을 왕래하였다. 원문에는 작품제목으로 <越中錄>이라 표기되어 있으나 편명으로 보아야 마땅할 듯하다. <淸泠浦>, <錦江亭>, <謁莊陵>, <聞逐虎>, <舟過法泉留贈法正>, <舟上望龍門>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말미의 작품인 <送樊巖蔡尙書出按關西>(1774) 외 2수는 그 시기가 또한 문제이다. '越中錄'이라 하기에는 성격이 다른데다 채제공이 평안감사로 나간 것이 1774년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채제공의 이때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신광수가 써준 작품이 바로 <關西樂府> 108수이다.

(바) 「關西錄」(55제 71수)

소서에 따르면, 1774년 12월에 浿江丞[大同道 察訪]에 임명되어 1775년 1월 경에 관서지역을 遊賞하며 쓴 시편들을 모은 것이다. [余於甲午(1774)十二月, 除浿江丞, 以明年(1775)正月赴任. 自松都而始, 凡所過名都大邑郵亭店舍樓臺山水, 遊賞登臨, 悉以詩記之. 得若干首, 摠名之曰關西錄云.] 대다수가 일반적인 기행시의 성격을 따르고 있다. <松京懷古>, <崧陽書院>, <初到箕營>, <題成都妓一枝紅軸>, <降仙樓陪巡相夜宴與成士執同賦>,

www.kci.go.kr

<又次士執劍舞韻>, <戱題所見>, <統軍亭>, <聚勝堂>, <白馬山城>, <林將軍廟>, <統軍亭觀妓樂> 등이 있다.

이중 <題成都妓一枝紅軸>, <降仙樓陪巡相夜宴與成士執同賦>, <又次士執劍舞韻> 등은 宴會를 작중 배경으로 삼아 기녀 및 演行을 소재로 삼은 것이며, <戱題所見>은 일행을 안내했던 여인의 뒷모습을 염정풍의 해학적 시선으로 읊은 것이다.

(사)「塞上錄」(104제 130수)

1782년 12월에 鏡城判官에 제수되어 함경도 鏡城으로 부임하여 가는 길목, 경성에 당도하여 주변을 순시하며 돌아본 곳을 배경 및 소재로 삼아 쓴 시편들을 모은 것이다. 사간원 正言으로서 홍낙성 등을 논핵하다가 오히려 국왕 정조에게 노여움을 샀던 터라, 갑자기 국경 遠地에 제수된 처지를 서글퍼하며 떠난 부임길이었다. 작품의 제작은 이듬해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작품인 <北行初日>은 아우, 舍叔(신광하?), 벗들에게 준 시 3편을 수록하였는데 '悲傷하다'는 심회를 그대로 노출하였다. <豊田驛>, <金城道中>에 이어 맥판, 신안, 회양, 철령, 고산관, 원산, 문천, 영흥, 낙민루를 거치며 가는 곳마다 시를 지었고, <題可憐詩卷> 이후 <衙罷奉呈舍叔>, <復次玉川韻却寄>으로 끝맺고 있다.

* 안대회본『懶雲稿』말미 추가분:『槐景錄』의 1774.7.4~7.27일자 기록 轉載 / 시 9제 10수 <幽居>, <書末寄兩弟>, <睡起>, <餞春>, <溪行>, <杖藜>, <次林仟皐蘭寺韻> 등.

이상에서 살핀 바를 참작하여 시기별로 대략 정리하자면,「綾城錄」(1765년 봄 전후/ 1771~1772년 작품이 후반부에 섞여 있음) →「北山錄」(2)(1766년 봄 전후) →「槐香錄」(출사 이전, 제작 시기 미상) →「北山錄」(1)

www.kci.go.kr

(1769년 전후) → 「越中錄」(1772년 전후) → 「關西錄」(1774～1775년) → 「塞上錄」(1782～1783년)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다. 생애 전반을 고려하면 현전 1783년 이후부터 1799년에 이르는 기간의 작품이 눈에 띄지 않는데 그 이유 또한 불분명하다.

3. 시문학의 실제와 특징적 면모

1) 家風과의 관련성

□ 신광수와 신우상의 대에 이르러 그들이 자신들의 가문과 문학적 역량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 申奭相이 <哭伯氏文>(『大鹵遺稿』)에서 밝힌 것처럼 그들의 가문은 신우상의 9대조인 申希潤으로부터 조부인 申澔에 이르기까지 獨子에 의존하여 실날처럼 이어오다가 석북 신광수 대에 이르러 자못 흥성한 양상을 띠고 있다. 신석상은 그것을 특별하게 기려 '신광수, 신광연, 신광하 및 자제 5인이 文學으로 科宦에 이르렀으니 성대하지 않는가'라고 찬탄하고 있다.[16] 이는 申履相이 <謫中吟病又逢陽至述懷憶新生雄孫三絶句>(『蕉石集』)에서 "우리 신씨 문장의 맥은 巖軒 申檣[17]에게서 비롯되어 선친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름이 났다(我申文脈自巖軒, 傳至先人世有聞)"는 선언적 자부심으로 피력되기도 한다.

특히 석북 가문이 지닌 문학에 대한 긍지는 申光河가 "시는 우리 집안의 특장이니, 大雅의 음이 적막하였다(音詩是吾家物, 寥寥大雅音.)"라는 신념에서[18]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찍이 尙州의 李承延에게 보낸

16) "吾家自淳昌公以後八世單傳. 越至我祖考生我石北騎鹿震澤三公. 石北公生吾兄弟五人, 有文學科官(宦의 오기일듯?)者七八人, 不出於父子兄弟, 亦不可謂不盛矣."

17) 巖軒 申檣(1382～1433)은 세종조의 문신이다. 그의 아들이 바로 신맹주, 신숙주이다. 신장에 대해서는 암헌선생전기편찬위원회, 『巖軒 申檣 傳記』, 태학사, 2011, 참조.

www.kci.go.kr

시 <寄李台甫承延>에 이르면 "남쪽 땅에서라면 우리 삼형제가 떨쳐 일어났고, 西江에서 두 李氏 형제[19]가 이름을 날렸다네. 문장은 천고의 사업인데, 형제들이 나란히 당대에 명성을 얻었네(南國三申起, 西江二李鳴. 文章千古事, 兄弟幷時名.)"[20]라고 하여 상주의 남인 가문인 이승연, 이병현 형제의 찬양을 겸하여, 한산 출신인 신광수, 신광연 및 자신이 당대에 문명을 날리게 된 것을 특기하고 있다. 이승연, 이병연 형제와 신광수 형제들은 모두 남인문단에 속한 문인들로서 당시 그들은 중앙의 남인 관료였던 丁範祖 등과 긴밀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문학의 자장에서 석북 가문이 지닌 보다 구체적인 특징은 신광수, 신광연, 신광하로부터 신우상의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안대회가 신광수의 <詩人>이란 작품을 예로 들며 '사대부가 시인으로 자처한 것 자체가 파격'이라 파악하고,[21] 진재교가 '진택 신광하는 시인으로 주목을 받았고 시인으로 자처하였으며 관직생활의 답답함도 시로 해소하는 등 무엇보다 시인으로서 자존의식을 높였다'고 본 견해[22]는 시 창작에 집중한 申禹相에게도 나란히 적용할 수 있는 면모이다. 자신의 체험과 심미적 경험을 주로 시 양식에 담아내었다는 것부터가 신광수, 신우상 부자의 공통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자간의 연관성을 손쉽게 살필 수 있는 현상이 시집을 꾸미는 방식이다. 현전하는 『石北集』의 편차와 신우상의 『懶雲集』·『懶雲稿』는 형태적인 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예컨대 『石北集』에 수록된 「關西錄」, 「驪江錄」, 「耽羅錄」, 「北山錄」, 「臨漳錄」, 「粵中錄」 등의 편성 방식은 아들 신우상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방식이 비록 17~18세기에

18) <次伯仲見寄>의 首聯, 『震澤文集』, 631쪽.

19) 李承延과 李秉延을 이른다. 『鹽州世稿』에 그들이 시문이 전한다.

20) 이승연, <寄李台甫承延>, 『震澤文集』, 405쪽.

21) 안대회, 위의 발표문 참조.

22) 진재교, 위의 발표문 참조.

www.kci.go.kr

두루 통용되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北山錄」, 「粵中錄」[23]이 신우상의 시집에도 겹쳐진다는 것 자체가 부자간의 공통분모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훗날에 『石北集』을 신우상, 신이상 등이 주도적으로 정리한다는 사실을 덧보태면 시집의 구성방식이 부친에게서 아들로 승계되었을 것이란 추정이 어렵지 않다.

□ 그러나 무엇보다 신우상이 가문의 시풍을 내면화한 양상을 지적하자면 詩風의 연속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 소재, 성향, 분위기에서 부자가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행을 통해 견문하고 느낀 바를 표현하는 양상이나 생활공간에서 대면할 수 있는 산수와 풍경을 주된 소재로 삼는다는 점, 그리고 풍류의 정경을 시적 소재로 포용하는 데 관대하다는 점 등이 우선 눈에 띈다. 단적으로 그의 시에는 부친과 마찬가지로 濂洛風에서 풍기는 理趣的 경향보다는 感性的, 緣情的, 浪漫的 경향이 비교적 강하며, 宋詩風에서 발현되는 산문화 경향이나 일상 사물 및 사회 현상을 취하여 이성적 성찰을 투영하는 시편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안대회가 석북 신광수의 시문학에 '緣情的이거나 낭만적인 작품성향을 강하게 유지한다', '작품이 어렵지 않고 서정성이 짙으며 사실성과 낭만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일상생활의 소소한 소재를 익살과 재치를 담아 읊기도 하여 읽는 재미가 있다', '가락이 살아 있고 음악성이 풍부하다'라고 파악한 내용은[24] 신우상의 시문학에 대한 지적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다음의 몇 작품을 통해 그 실상을 엿보기로 한다. (가), (나), (다), (라)는 각각 「綾城錄」, 「北山錄(1)」, 「關西錄」, 「塞上錄」에서 뽑은 것인데, 현전하는 자료의 시기적 지속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23) 1772년 신광수가 영월부사를 지냈던 당시의 시편을 모은 것으로 신우상의 「越中錄」에 대응된다. 「월중록」이 비록 후대에 정리된 것이라 할지라도 신우상이 이 시기의 시편을 「越中錄」으로 묶어 두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24) 안대회, 위의 발표문 참조.

www.kci.go.kr

(가) <過州城戱吟> : 綾州城을 지나다가 재미삼아 짓다

서봉루 앞엔 교방이 여섯
길 가는 사람 여기서 간장이 녹는다네.
푸른 버들 깊은 곳은 사사[25]의 집이요
살구꽃 붉은 곳은 소소[26]의 담장이라.
분칠한 담장에 쌍쌍이 나는 나비요
담황색 분갑에는 낱낱이 원앙일세.
한밤중 비단 자리마다 다정한 꿈들
반은 님을 맞고 반은 님 보내는 중.
栖鳳樓前六敎坊 行人到此盡消腸 綠楊深處師師宅 紅杏濃邊小小墻
粉壁雙雙飛蛺蝶 綃奩箇箇盡鴛鴦 綺筵午夜多情夢 半是迎郎半送卽
-「綾城錄」

(나) <北山野興> : 북산의 밤 흥취

북산의 멋진 경물에 가을 기운 서늘하여
높은 누각 성긴 주렴에 밤 새 흥은 끝없구나.
바람 일어 새들은 나무숲에서 퍼덕이고
하늘 맑아 별들은 내 옷으로 쏟아질 듯.
항아리 술 두고 손님 떠나도 외려 취기 가득하고
흩어진 시축에 시를 이루니 더욱 기운 호탕해지네.
누대에선 몇 곳이나 포근히 잠들었을까?
朱門은 공연히 잠겨 있고 달빛은 담장에 빗기네.

---

25) 사사: 송 휘종이 당시의 이름난 기생 李師師의 집에 놀러 다녔다고 함.
26) 소소: 錢塘의 유명한 기녀. 蘇小小라고도 함.

www.kci.go.kr

北山雲物早秋凉 高閣疏簾夜興長
風起烏鴉翻樹木 天晴星斗滿衣裳
深樽客去猶多醉 亂軸詩成轉放狂
幾處樓臺眠正熟 朱門空鎖月橫檣 -「北山錄」(1)

(다) <戲題所見>

戎裝하고 길 안내하는 두 아가씨
가는 허리 낭창낭창 연한 버들가지인 듯.
해질 녘 청산으로 날쌘 말은 떠나는데
어렴풋이 하늘에서 紅線[27]이 내려오는가 싶네.
戎裝前導兩蛾眉 搖颺纖腰弱柳枝 落日靑山飛馬去 依俙紅線傳下空時
-「關西錄」

(라) <北行初日> : 북쪽으로 가는 첫 날

동쪽으로 동문 나서니 역로는 아득한데
석양에 고개 돌려 서울을 바라보네.
애달프다 저 멀리 변방 가는 삼천 리 길
형제들 이별하자니 늙어서 더욱 힘들구나.
東出靑門驛路漫 夕陽回首望長安 遙憐塞外三千里 骨肉分離老更難
- <右屬諸弟>

---

27) 홍선: 당나라 傳奇小說인 <紅線傳>의 여주인공으로 추정된다. 소설 속의 홍선은 潞州節度使 薛嵩의 하녀로서 설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묘한 계략으로 주인을 구하는 호협적 인물이다. 김조순이 <五臺劍俠傳>을 짓는 데 이 작품을 참조했다고 한 예가 있다.

www.kci.go.kr

외줄기 연기 오르는 樓院의 숙소
살풋 눈마저 내린 도봉산의 앞.
남쪽 북쪽으로 헤어져 떠나가는 길
暮年이라 서로가 가슴 아프다오.
孤烟樓院店 微雪道峯前 南北分飛路 悲傷各暮年 - <右屬舍叔>

험난한 국경의 길이 너무나 멀어
친구들 온통 귀양 보낸다는 표정일세.
하늘 끝 가는 길에 오늘밤 어디서 자랴만
벗들 중에 그 누가 나 그리워 할 것인고?[28]
關山難越極支離 親友渾如送謫時
天外計程今夜宿 故人誰復憶微之 - <右屬諸益> : 이상 3수 「塞上錄」

(가)는 1765년 봄 綾城을 유람한 당시에 지은 작품이다. 「綾城錄」소서에서 '排諧와 玉臺香奩을 사양하지 않겠다'고 스스로가 밝혔던 것처럼 이 시는 敎坊 妓女의 풍정을 낭만적이고 艶情的인 시선으로 묘사하였다. 번화가의 교방 기녀에 끌리는 관심을 '간장이 다 녹는다[盡消]'고 집약한 다음, 교방의 미인들에 대한 인상[함련], 나아가 애정을 그리는 기녀들의 내면을 나비가 그려진 담장과 원앙이 수놓인 분갑을 통해 비유적으로 투사하였다. 尾聯에서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기녀들의 꿈을 소재로 삼은 것 역시 이 시의 분위기를 은근한 염정의 분위기로 안내하고 있다. 더욱이 이 시는 '師師', '小小', '雙雙', '箇箇', '半是', '半送' 등의 疊語를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음악성을 강화하고 歌唱의 가능성까지를 고려한 듯 보인다.

대동도 찰방으로 부임하여 관찰사의 순행을 수행하던 중에 쓴 (다)의 작

28) 원문의 '憶微之'는 백거이가 원진을 전송하며 쓴 <憶微之>를 점화한 것으로 보인다. 백거이는 원진과 이별한 지 3년 째 되는 신년에 지난날 버들가지를 꺾어주며 이별했던 정경을 회고하며 이 시를 썼다.

www.kci.go.kr

품 또한 (가)와 비슷한 시선과 어조를 띠고 있다. 길 앞에서 안내하는 어느 여인의 간드러진 모습을 소재로 삼은 것 자체가 '戱題'의 짓궂은 시선을 표명하고 있다. 여인의 허리를 연한 버들가지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자못 음흉스런 사내의 눈길을 감지케 하거니와 결구에서 소설 속의 豪俠女傑이었던 홍선에 두 여인을 비유한 것 또한 性的 분위기를 포함하고 있다.

齋洞에 거주하던 시절에 지은 (나) 역시 벗과의 酬唱이 끝난 상황을 배경으로 삼아 감성적 어조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주인 잠든 朱門의 저택에 달빛만이 헛되이 담장을 비껴 흐른다고 한 미련의 이미지가 몽롱한 낭만성을 느끼게 한다. 경성판관으로 부임하기 직전에 쓴 (라)의 시편들은 머나먼 국경으로 떠나야 하는 비감을 표현한 것이라서 애초 感傷的 정조를 전면화하기에 적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형제들과 이별하는 슬픔[右屬諸弟], 눈 내린 도봉산 앞에서 舍叔과 헤어져야 하는 비애[右屬舍叔], 그리고 유배를 보내는 듯 처량하게 자신을 전송하는 벗들을 떠나 하늘 끝 먼 길을 향해가는 애처로움[右屬諸益]을 표현한 것이 한결같이 서정적 정서에 기초해 있다. 말하자면 緣情的 성격이 도드라진 작품인 셈이다.

(가)~(라)의 시편만으로 신광수의 전 작품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작품이 전반적으로 理趣보다는 感性을 시적 자양분으로 삼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감성을 바탕으로 경물과 풍정을 시에 수렴하는 태도가 신광수의 작품세계와 상통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가)와 (나)에서처럼 여인을 시적 시야에 포섭하여 艶調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예는 당시 석북가의 시풍에서 확연한 특색을 이루는 요소이다. 이 부분을 따로 강조하여 다음 절에서 이를 확대해본다.

2) 風流의 시적 수용과 艶情化 경향

□ 부친 신광수의 시 가운데 <寒碧堂十二曲>(1748년 이전), <關西樂

www.kci.go.kr

府>(108수, 1774)는 官邊 風流와 관계가 깊은 작품들이다. '<관서악부>는 使君을 중심에 둔 <한벽당십이곡>이나 <금마별가>와 내적인 연속성을 갖는다', '<관서악부>는 <한벽당십이곡>의 관변풍류를 중심에 두고 <금마별가>에서 선정을 베푸는 使君의 이미지를 결합시킨 작품'이라고 본 이은주의 견해[29]를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 使君의 선정에 초점을 맞추어 상상의 장면을 묘사한 <金馬別歌>(연작, 1760)를 예외로 하더라도, 신광수는 흥겨운 연회와 艶情의 분위기를 시적 요소로 충분히 활용한 시인이다.

풍류를 시적 요소를 활용하는 양상은 비단 신광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신광하를 비롯한 당시 석북 가문의 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예컨대 신광하의 <竹西樓夜讌贈諸妓>가 <關西樂府>와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30] 또한 신우상의 아우였던 申履相 또한 <秋夜與李聖在公度徐衡叔諸人聽老妓春香歌, 次衡叔七絶韻>, <贈歌妓春香>(제목주: 春香, 以善歌名, 到老不衰, 音調圓熟淸亮, 少時游於趙豊原君門演習云), <又以六絶代竹枝詞 幷示聖在公度要和以贈>(제목주: 有老伶崔未不者, 亦以吹網管幷有名, 盖與香共習於趙相門者也) 등을 남겨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음악, 여인[특히 기녀], 풍류가 어울린 장면에 대한 시적 관심이 石北家 한시의 특징적 경향이라 할 수 있는 셈이다.

당시 석북 가문의 문인 중에서도 艶情의 소재와 분위기, 기녀와 연관된 풍류의 현장 및 기녀의 삶에 대한 관심을 대폭 확장시킨 인물이 바로 신

29) 이은주, 「신광수 <관서악부>의 대중성과 계승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78쪽.

30) 이은주, 위의 논문, 18면 참조. 국립중앙도서관본『關西樂府』, 단국대 율곡도서관본『關西樂府』, 개인소장본『關西樂府』에 신광하의 해당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www.kci.go.kr

우상이다. 특히 신우상이 1765년에 綾城을 유람하고 남긴 「綾城錄」은 '玉臺香奩體'의 시풍을 적극적으로 구사한 특이한 문집이다. <綾城別曲>(8수), <過州城戱吟>, <贈朱娘>, <又四絶>, <奉呈東閣>, <留別幼能>, <無題四首戱人>, <南茶別曲十解>이 모두 이 계통에 속하지만 여기에서는 <綾城別曲>(8수)과 <南茶別曲十解>에 초점을 맞추어보기로 한다. 아래는 <綾城別曲>의 제1수, 제5수, 제6수이다.

릉성의 아가씨들 봄날에 답청하니, 까만 머리에 붉은 치마로 몸을 감쌌네.
행수가 아침부터 일제히 모이라더니, 내일은 관가에 새 사또께서 오신다네.
綾城兒女踏輕春 烏髻紅裙一束身 行首朝來齊結習 使家明日上官新 - 제1수

복숭아 모양 쪽진 머리에 진홍빛 치마 입고, 일제히 아침 관아에 가서 사군을 뵈옵네.
오늘 이 능성 땅이 楚峽은 아니라지만, 어이 알리 누군가는 꿈속의 구름이 될 줄.
天桃鬟樣石榴裙 齊上朝衙拜使君 今日綾城非楚峽 不知誰是夢中雲 - 제5수

불긋한 누대 버들가지에 햇살 기울고, 봄 온 능성 땅엔 온 나무에 꽃피었네.
꽃 시절 금년에는 누가 제일 좋나? 남쪽 언덕 교방의 어여쁜 아가씨 집일세.
紅樓楊柳日西斜 春到綾城滿樹花 花事今年誰第一 敎坊南畔美娘家 - 제6수

<綾城別曲>(8수)의 전체적인 내용은 신관 사또에게 기녀들이 인사 올리는 장면(제1수)으로부터 시작하여, 능성 부녀들의 踏靑과 花煎(제2수), 봄날의 戀情을 부추키는 映碧亭의 풍경(제3수), 대동강 못지않은 鳳棲樓에

www.kci.go.kr

서의 풍류(제4수), 사또와의 깊은 인연을 바라는 기녀들의 심리에 대한 추측(제5수), 봄날의 꽃구경에 설레는 교방의 기녀들에 대한 시선(제6수), 릉성에서의 인연을 남기고 떠나는 시인의 아쉬움(제7수), 저물녘에 릉성을 떠나는 斷腸의 심회(제8수)로 구성되어 있다. 기녀와 아녀자들의 풍정을 시상의 전면에 배치한, 일종의 '綾城의 추억'을 구성한 연작이다.[31]

위의 세 작품에서 보이듯 <綾城別曲> 연작에서 시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여인들과 그들의 삶'이다. 릉성 부녀자들의 답청과 화전에도 관심이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초점은 敎坊 기녀들과 그들이 배석한 풍류의 공간[봉서루, 영벽정]에 맞추어져 있다. 한껏 몸치장을 하고 新官에게 점고를 준비하는 장면(제1수), 신관을 뵙는 첫 만남에서 은근히 楚峽 雲雨夢을 기대하는 기녀들의 속마음(제5수), 꽃 만발한 봄날에 가장 봄을 타는 사람은 바로 교방의 아가씨들 것이라는 추측(제6수)이 모두 '교방'을 핵심적 시상으로 삼고 있다. 유람객인 남성의 낭만적인 春情이 이런 艶調의 풍정을 낳게 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贈朱娘>은 잊지 못할 만남과 인연을 맺었던 朱娘에게 써준 艶調의 시이며,[32] 검무를 춰주었던 기녀에게 은근한 정을 담아 써준 <又四絶>, 政事를 돌보는 한편으로 楊州刺史의 風流를 누리는 사또를 형상화한 <奉呈東閣>, 자신을 융성한 풍류로 대접해준 사또에게 올리는 <留別幼能>, 정을 나눈 여인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한 <無題四首戱人> 등은

---

31) 전체 원문은 "綾城兒女踏輕春 烏髻紅裙一束身 行首朝來齊結習 使家明日上官新"(1); "青青竹色照羅衣 寒盡綾城夜雨微 待到城山花滿發 煮花春谷踏青歸"(2); "綾城西北碧亭開 亭下春流拍岸來 養得鴛鴦雙箇箇 敎他波上日徘徊"(3); "高樓栖鳳起雙雙 旖旎梧桐四面牕 浮碧風流他自好 綾城誰減大同江"(4); "天桃鬢樣石榴裙 齊上朝衙拜使君 今日綾城非楚峽 不知誰是夢中雲"(5); "紅樓楊柳日西斜 春到綾城滿樹花 花事今年誰第一 敎坊南畔美娘家"(6); "金鰲春月滿山明 看月何人夜夜情 圓缺他時那可定 天涯離恨是綾城"(7); "松林西出斷腸時 官道斜陽下古碑 爲是綾城洒淚地 盡敎松樹不生技(枝의 오기일 듯함)"(8)이다.

32) 원문은 "鈴閣寒輕蠟炬傳 春城人定綠楊烟 樓臺縹緲無雙月 羅綺葱蘢第一仙 雲雨如今空楚峽 風流何處醉樊川 寥寥獨對西牕燭 腸斷琵琶十二絃"이다.

www.kci.go.kr

한결같이 남녀의 情分을 곳곳에 점철시켜 놓았다. 그중에서도 아래의 <南茶別曲 十解>는 담배를 제재로 삼아 농도 짙은 염정을 결합한 형세이다. 제3수 제6수, 제8수, 제10수를 든다.[33]

삼등 땅이랑 진안 땅은, 좋은 담배가 난다고들 하네.
쓰디쓴 담배맛도 외려 좋으니, 인정까지 좋다면 말해 무엇해.
三登與鎭安 皆言好南草 苦草尙云好 況乃人情好 - 제3수

푸른 연기는 하 하늘하늘, 첩의 마음은 하 모락모락.
모락모락 입안에 들이 쉬니, 단지 쓴지는 당신이 절로 알겠지요.
靑烟何嫋嫋 妾心何絲絲 絲絲納吸在口 甛苦君自知 - 제6수

섬섬옥수로 담뱃대 닦아내고, 낭군께 올리니 입 벌려 태우시네요.
흘린 침이야 서로 통해도, 이 좋은 재미를 은근히 알겠지요.
纖手拭尖筒 與郎開口受 涎沫許相通 暗識滋味厚 - 제8수

담뱃진 눈물처럼 흘러나오면, 담배가루 다 탔다고 말들 하지만.
타 없어지고 다시 타 없어진들, 이내 마음은 그칠 날이 없으리.
流津如淚出 道是燒盡時 燒盡亦復燒 此情無已期 - 제10수

<南茶別曲 十解>는 '외설스러움을 탓한다 해도 감히 사양하지 못할 것

33) 전체 원문은 "燕京白銅帒 金海玳瑁竹 勸郎吸一盞 儂腸燒曲曲"(1); "靑銅小火爐 白炭火成堆 中心抱點紅 到死方作灰"(2); "三登與鎭安 皆言好南草 苦草尙云好 況乃人情好"(3); "方紗小紬囊 細皺黃鵝色 深淺任君探 到底誰相惜"(4); "嵌紅一放鐵 玲瓏六稜石 親就郎手中 奪來要一擊"(5); "靑烟何嫋嫋 妾心何絲絲 絲絲納吸在口 甛苦君自知"(6); "團團兩盞合 吹火故遲遲 遲遲尙云可 但恐心未知"(7); "纖手拭尖筒 與郎開口受 涎沫許相通 暗識滋味厚"(8); "燈前一雙竹 雜置要郎辨 儂意自有主 郎眼能無倦"(9); "流津如淚出 道是燒盡時 燒盡亦復燒 此情無已期"(10)이다.

www.kci.go.kr

(若其靡褻之誅 有不敢辭)'이라 했던 小序의 발언을 떠올리게 만든다. 화려하고 호사스런 담뱃대로 낭군과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제1수), 청동 화로에 듬뿍 넣은 白炭은 시적 화자인 여성의 발갛게 타들어가는 마음을 은유하고 있다[제2수]. 이어 제3수에서는 삼등과 진안에서 나오는 최고급 담배를 피우며 戀情을 교감하는 분위기이며, 옷섶 안으로 손길이 들어도 마다하지 않는 남녀의 성적 유희(제4수)와 담배를 나눠 피우는 장면(제5수)은 마침내 제6수와 제7수의 교태로운 음성에 이르고 있다. 제8수에서는 담뱃대 불을 붙어 낭군에게 주는 상황인데 묻은 침이 서로 통한다 해도 그 또한 재미가 진진하다고 하여 정분의 농도를 더하고 있다. 시적 화자인 여성은 제9수에서 한 번 더 남성을 향한 연정을 확인시킨 뒤, 마지막 제10수에서 다함이 없는 연정을 바치겠다고 하였다.

<南茶別曲 十解>는 아마도 담배를 소재로 삼은 시편 중에서 가장 濃艶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된다. 일견 퇴폐적인 정감에 기울어있을 정도로 이 연작은 성인 남녀의 性的 遊戱를 과감하게 묘사하였다. 작중에 묘사된 상황이 실제가 아니라 가상적으로 설정한 擬作的 상황이라 해도 담배에 대한 성적 환상을 이토록 극화시킨 예는 다른 곳에서 찾기가 어렵다.[34] 말하자면 담배에 관한 성적 환상을 매우 농도 짙게 형상화한 작품이 바로 <南茶別曲 十解>인 것이다.

더불어 이 작품은 樂府의 '別曲'이라는 장르적 성격을 의식적으로 배려한 듯 읽힌다. 남녀간의 애정이라는 소재가 樂府風에 적합한 것은 물론이요 비교적 쉬운 어휘와 구법을 활용하며 음악성을 강화하려는 흔적이 보인다. 육성에 버금가는 대화체의 사용, 나[儂]와 낭군[君, 郎]의 분명한 대비, 지명과 사물을 짝지은 댓구[燕京白銅과 金海玳瑁, 靑銅과 白炭, 三登과 鎭安 등], 첩어의 빈번한 활용[曲曲, 嫋嫋, 絲絲, 團團, 遲遲 등], 반복구를 통한 운율감 강화(제 10수의 燒盡] 등이 그러한 요소들이다.

---

34) 안대회, 『연경, 담배의 모든 것』, 휴머니스트, 2008에도 담배 관련 시문을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으나 성적 농도에서 이와 비견할 작품은 거의 없다.

www.kci.go.kr

따라서 「綾城錄」의 시편들, 특히 <綾城別曲>과 <南茶別曲 十解>는 작자인 신우상이 樂府風의 艶情을 극도로 확장시켜 음악성 또는 가창성을 보강한 작품군이라 평가할 만하다. 이런 면모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신광수의 악부와 상통하는 것이다. 신광수의 작품 <寒碧堂十二曲>(1748년 이전)과 <金馬別歌>(1760)를 떠올려보면 부친의 시풍이 아들 신우상에게 승계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가정하고도 남는다.

한편 「綾城錄」이후에 신우상의 악부풍 염조는 어떻게 되었을까? 현전 자료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이에 대한 관심과 詩化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히 릉성에서의 유람을 그는 잊지 못했던 듯 이와 관련한 작품을 몇 차례 더 남기고 있다.

이듬해인 1766년작 <早春寄遠>(3수, 「北山錄」 2)에서 "지난 해 악기 가락 꿈속에 들리는 듯, 봄이 온 풍광은 사방에 화사하리. 봉서루에 올랐던 지난해 손님[나]는, 지금도 옛 벗[사군]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오(笙歌如夢隔年聲, 烟月春來滿地明. 曾作鳳棲樓上客, 至今猶記故人情. 제1수)", "저 하늘가에 방초는 다시 새로 피겠건만, 서글퍼라 강남에 다시 봄이 왔으리. 삼삼해라 산머리 성에 가득 든 달빛은, 깊은 밤 주렴 너머 그 누굴 비춰줄까?(天涯芳草綠還新, 怊悵江南又一春. 依舊山頭滿城月, 夜深簾幕照何人. 제2수)", "누대의 버들가지는 바람결에 시들고, 누대 위 악기 가락 지난해가 떠오르네. 뉘가 알랴 북산의 눈 내리는 봄날에, 나 홀로 쓸쓸이 등잔 벗해 누운 줄을(官樓楊柳晩風前, 樓上笙歌憶去年. 誰念北山春雪夜, 寂寥惟伴一燈眠. 제3수)"에서 보는 것처럼 릉성의 추억은 여전히 그의 내면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을 지은 몇 년 뒤에 綾城에서 올라온 16세의 기녀를 만나 특이한 연작 <夜聞綾妓彈琴>(8수)을 짓고 있다는 점이다.[35] 제

35) 전체 원문은 "千迴恩怨百迴情 彈出檀槽夜雨聲 曾是鳳栖樓上聽 令人惆悵憶綾城"(1); "京師初入學針方 杜妹雲心教法良 醫得世間無一病 只應難藥楚襄王"(2); "十三身着小

www.kci.go.kr

목 주에 "이 기녀는 바야흐로 女醫로 선발되어 內院에 들어왔다(妓方以女醫選入內院)"고 한 것과 '13세에 紅裙을 입고 映碧亭에서 사군을 모셨다'(제3수)고 한 것으로 보아 예전에 만났던 인연을 계기로 북산 재동에 거처하던 신우상을 찾아왔던 듯하다. 시의 내용은 여전히 艶調를 바탕에 깔고 있으며 '綾妓'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사이사이에 배어 있다. 그녀에 대한 인상이 담긴 제5수를 보기로 한다.

남쪽나라 차림새에 서울식 곡조로
十二靈山會上曲을 목청 높여 부르네.
요즘 곡조는 배운 바가 아직 서툴러서인
스스로 부끄럼 타는 모습 더욱 교태롭구나.
江南裝束洛陽調 十二靈山會上高 時體學來猶未慣 自添羞澁更含嬌

막 상경한 여인의 차림새와 서툰 서울말을 먼저 살피고 영산회상곡을 불러주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기구와 승구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유행하는 근래의 곡조를 미처 익히지 못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시인이 느끼고 있는 것은 '교태를 머금었다(含嬌)'는 반응이다. 역시 艶情的 어조를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염정적 소재와 분위기 또는 풍악고 풍류의 현장을 반영한 시편은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지속된다. 「北山錄」(1)의 <送洪景尹之任綾城>, 「關西錄」에 실린 <題成都妓一枝紅軸>, <降仙樓鄭喜巡相夜宴與成士執同賦>, <又次士執劍舞韻>, <戱題所見>, <統軍亭觀妓樂>이 그러하며 1783년 무렵에 지은 「塞上錄」의 <題可憐詩卷> 또한 같은 결이다.

紅裙 映碧亭中侍使君 今日忽逢京洛裏 綠蛾新長髻如雲"(3); "天桃鬢揉扮新粧 二八琴成入漢陽 只爲初來情便澁 畏人猶自學深藏"(4); "江南裝束洛陽調 十二靈山會上高 時體學來猶未慣 自添羞澁更含嬌"(5); "嬌歌淺笑各成聲 纔學多情又薄情 只是逢人嬌轉劇 强將慇態不言名"(6); "羅襪盈盈腰帶翩 女醫班裏最芳年 料得南來初夜意 暗商多少不成眠"(7); "內醫院中初按籍 碧粧洞裏且求家 應似牧丹初入洛 暫須根着欲開花"(8)이다.

www.kci.go.kr

咸興 산천 봄풀은 실타래처럼 푸른데
出師表 부르던 맑은 목청이 온통 땅에 묻혔네.
천고에 지음이라면 제갈량 노인이 아닐까
구천에서 마주하며 눈물 줄줄 흘리리라.
咸山春草綠如絲 埋盡淸喉兩出師 千古知音諸葛老 九原相對淚應垂

작중의 可憐은 제갈량의 전후 <出師表>를 잘 불러 명성을 떨친, 그러면서도 절개와 지조를 지켜 사대부 사이에 기림을 받은 함흥 기생이다.[36] 지금은 땅에 묻혀 만날 길이 없지만 신우상은 이 여성을 기린 詩卷에 그의 의협심과 절개를 부각시키고 있다. 당시 그가 경성판관으로 부임하는 길이었음을 생각건대 단순히 기녀에 대한 관심을 넘어 義氣가 있었던 歌妓로 기녀를 회억하고 있는 듯하다.

4. 맺음말-비평사적 시각을 덧보태

이상에서 신우상의 현전하는 저작을 소개하는 한편으로 그의 한시에 나타난 특징을 家風과 관련지어 조망해보았다. 그 결과 부친 신광수, 숙부 신광하와 견줄 수 있는 공통의 성향으로 緣情的이고 浪漫的인 경향, 풍류와 염정을 활용하는 경향, 음악성을 겸비한 악부 창작의 양상, 나아가 「綾城錄」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艶情風의 한시를 강화한 양상을 짚어 보았다. 물론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紀行詩, 景物詩, 酬唱詩 등이 무시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여타 작가들과 대비되어야 한다면 본고에서 고찰한 결과가 응당 주목받아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36) 가련에 대해서는 정우봉, 「18세기 함흥 기생 可憐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 『한문교육연구』 제3호, 2010 참조.

www.kci.go.kr

논의된 결과는 한편으로 18세기 전후의 한시사에서 신우상 한시의 위상과 가치를 되묻게 한다. 비평사적 맥락에서 신우상의 한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첫 번째로 당시 석북 가문의 시풍이 당대의 문단에서 개척한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앞서 든 낭만적이고 가창성이 풍부한 악부풍 한시의 개척이야말로 이들이 이룩한 성취에 기억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의의는 이들의 시적 경향이 擬古派의 자장에 닿아있으면서도 향토색과 지역성을 능동적으로 흡수하였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申履相이 <書春州雜咏後示兒序>에 진술한 바, "家大人[신광수]께서 古樂府, 離騷, 文選, 班固, 司馬遷, 左傳, 國語를 비롯하여 老杜, 三唐詩 등의 詩文을 가르쳐주셨는데 반드시 先秦과 兩漢을 시초로 삼으셨다(旣而家大人, 授以古樂府騷選班馬左國及老杜三唐詩等詩文, 必以先秦東西京爲發軔之初)"고 한 내용을 다시 음미해보고 싶다. 사실 「綾城錄」에 중심을 맞추어 이 글에서 소개한 시편들은 사대부의 서정적 내면을 섬세하게 짜낸 근체시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오히려 다수의 작품들이 고악부의 질박함과 소박함, 운율감과 가창성을 향하고 있다. 신우상의 시풍에 영향을 미친 근원적 텍스트로서 古樂府, 離騷, 文選, 三唐詩 등을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점을 구체적으로 검증해내지 못했지만, 간추려본 특징들이 결국은 저 멀리 고악부의 정신과 아스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www.kci.go.kr

■ 참고문헌

*** 원자료**

申禹相,『懶雲稿』, 안대회 소장본.
申禹相,『懶雲集』, 장서각본.
申禹相,『槐景錄』, 후손가 소장본.
申奭相,『大鹵遺稿』文卷, 개인소장본.
申履相,『蕉石集』, 개인소장본.
申光洙,『石北集』, 한국문집총간본, 231.
申光河,『震澤文集』,『崇文聯芳集』소수본.
申芙蓉堂,『芙蓉詩選』,『崇文聯芳集』소수본.

*** 인터넷 검색 자료**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석북집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http://db.itkc.or.kr/) 제공본.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http://db.itkc.or.kr/) 제공본.
<승정원일기>,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http://db.itkc.or.kr/) 제공본.

*** 저서**

암헌선생전기편찬위원회,『巖軒 申檣 傳記』, 태학사, 2011.
안대회,『연경, 담배의 모든 것』, 휴머니스트, 2008.
윤경수,『石北詩硏究』, 정법문화사, 1984.
이기현,『석북 신광수 문학 연구』, 보고사, 1996.

*** 논문**

이은주,「신광수 <관서악부>의 대중성과 계승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정우봉,「18세기 함흥 기생 可憐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한문교육연구』제3호, 2010.

www.kci.go.kr

*** 발표문**

안대회, 「石北家와 조선후기 문단」(안대회), 「석북 신광수 선생 탄신 300주년 기념 학술대회-석북 신광수와 숭문연방」, 2012.

이은주, 「石北 文集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상동.

송지원, 「석북과 음악」, 상동.

진재교, 「詩人 申光河의 삶과 人間相」, 상동.

박영민, 「申芙蓉堂의 생애와 의식세계」, 상동.

장유승, 「申履相의 생애와 저술」, 상동.

이현일, 「大鹵 申奭相가 그의 시문집」, 상동.

이 논문은 2012년 11월 16일에 투고되어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2012년 12월 14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www.kci.go.kr

Abstract

Nawoon(懶雲), Shin Woo-sang(申禹相)'s Poetry and Prose

Kim Dong-jun

The paper's purpose is to introduce Shin Guang-soo(申光洙)'s eldest son, Shin Woo-sang's (1730-1799) literary collections－*Nawoon Manuscripts*(懶雲稿), *Nawoon Anthology*(懶雲集), and the *Records of Guae-gyeong*(槐景錄)－and to take a broad view on his life and his Chinese poetry. To examine Shin Woo-sang's literary point of view,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literary works and his family tradition; then study the meaning of poetry history base on it.

In the second section, Shin Woo-sang's biography is summarized; then it describes the construction, main contents, and the period of poetry composition of *Nawoon Manuscripts* and *Nawoon Anthology*. An outcome which rearranging the whole course of his literary works base on the period of poetry composition will be the groundwork for later Shin Woo-sang's research.

In the third section, his poetry practice and its distinctive feature are separately considered with the relationship of the family tradition, the reception of *pyungrhyu* (風流), and an inclination for passion. As a result, we can perceive that his poetry's tendency for passion and romance, an application of *pyungrhyu* and love, a creative aspect on *arkbu*(樂府), and intensifying Chinese poetry with passionate air are succeeded from his family tradition. Furthermore, perceiving these distinctions with the accordance of the eighteenth century Chinese poetry criticism history's context, his works can be appraised as examples of adopting nourishments from the faction of composing in ancient style and absorbing the characteristics of native

www.kci.go.kr

and regional nature actively.

Through the paper's result on Shin Woo-sang's literary works, hopefully, prove a part of direction in how the spirit of ancient *arkbu* settled in Korean literature.

Key words : Shin Woo-sang(申禹相), Shin Guang-soo(申光洙), Shin Yi-sang(申履相), Shin Suk-sang(申奭相), Nawoon Manuscripts(懶雲稿), Nawoon Anthology(懶雲集), the Records of Guae gyeong(槐景錄), passion(艶情), pyungrhyu(風流), compose in ancient style(擬古派), arkbu(樂府)

www.kci.go.kr

www.kci.go.kr